

서로 다른 시공간의 충돌...대규모 융복합 미디어로 펼쳐지다

역사 이래 수많은 예술가들은 자신만의 관점으로 다양한 주제를 구현해왔다. 무수히 많은 주제들 가운데 시간과 공간은 가장 복잡하면서도 깊은 사유를 요하는 주제다.

시간은 어디에서 태동해 어디로 흐르는 것일까? 궁극적으로 시간이 도달하는 지점은 어디일까? 시간의 변화에 따른 공간의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까? 철학자와 과학자, 문학자를 비롯한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작품에 시간과 공간의 의미와 가치 등을 투영해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수여하는 '제1회 ACC 미래상' 수상 작가인 김아영은 시간과 공간에 천착해왔다. ACC 미래상은 미래 가능성을 확장한 융복합 분야 예술가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첫 수상의 영예를 안은 김아영 작가의 미래상 수상작 '딜리버리 댄서의 선:인버스'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다.

ACC(전당장 이강현) 지원을 받아 제작된 신작은 시간과 공간의 관계, 서로 다른 시간관과 세계관 사이의 충돌과 접점 등을 다룬다. 전시는 내년 2월 16일까지 복합전시관서 펼쳐지며 11m 컴퓨터 그래픽과 3채널 영상 등 대규모 미디어가 압권이다.

그동안 김 작가는 사실과 허구, 역사적 사건에서 파생한 동시대 문제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경계를 넘나들며 탐구를 해왔다. 주제 또한 이주, 자본주의, 국가이데올로기 등 거시적 문제 외에도 고고학, 미래주의 사이언스 등 SF적 상상력을 요하는 부분까지 아우른다.

'제1회 ACC 미래상' 수상 김아영 작가 수상작 '딜리버리 댄서의 선:인버스' 공개

지난해에는 '딜리버리 댄서의 구'로 한국인 최초 세계 미디어 아트 어워드인 '프리 아츠 일렉트로 니카'에서 최고상인 '골든 니카' 상을 수상했다. 작품은 영국 테이트 모던에 소장됐다.

"이번 '딜리버리 댄서의 선'은 이전 '딜리버리 댄서의 구'에 등장했던 두 주인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상 세계에서 시간 지연과 내비게이션의 미로에 빠졌던 주인공들이 새로운 가상 도시에 놓이게 되죠. 소멸된 것으로 알려진 과거 시간관을 배달하면서 다른 시간관의 사회와 갈등하게 되죠."

스펙타클하면서도 역동적인 장치, 화려한 화면 구성은 한편의 SF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작가는 서구 근대와 과정에서 사라진 전통적 역할과 시간관을 소환한다. 발전과 도약, 상승 등 직진 위주의 근대화와 달리 비서구적 시각과 아시아의 미래성을 주목한다. 이를 위해 역법의 기호 등이 상징 장치로 활용된다.

전시 제목인 '선' (Arc)은 해시계와 작품 속 달력판의 곡선, 호의 형태를 차용했다. 시간성을 상징하는 한편 시간과 공간, 인간과 역사, 탈주하는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로 기호화된다.

"제목에 포함된 '인버스' (Inverse)는 말 그대로 반비례 관계를 뜻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속도의 역수로서 시간을 의미하죠. 속도 경쟁으로 파생된 다른 시공간과 그 간극에 수많은 세계가 공존하고 있

다는 것을 전제해요."

김 작가에 따르면 '인버스' (Inverse)는 변화무쌍한 주인공들이 이야기처럼 시공간이 휘고, 접하며, 굽이굽이 도는 서사로 전이된다. 변형과 변화는 예측 불허의 시공간이 파생하는 의미있는 가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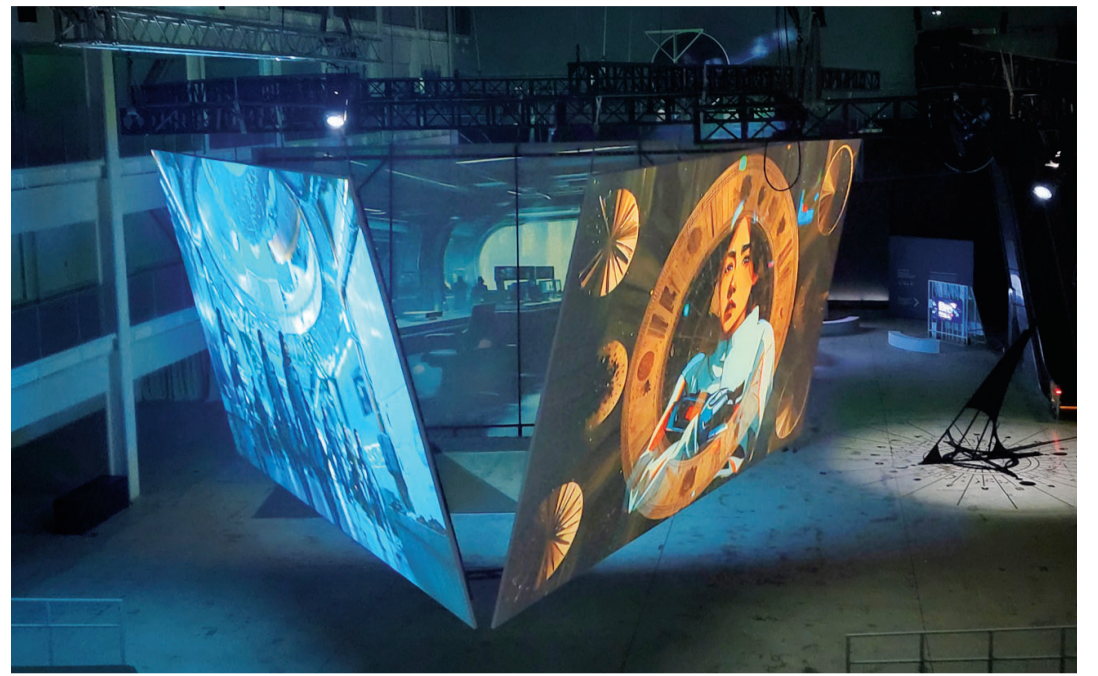
중앙의 거대한 3면 스크린이 주는 효과는 압도적이다. 인공지능과의 협력을 통해 창조된 가상세계가 마치 하늘에 펼쳐진 느낌이다.

그런데 김 작가는 왜 시간과 공간에 천착하는 것일까.

"아시아에서 태어나 아시아인으로서는 아시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시간은 서구 근대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죠. 저는 아시아적 가치를 작품 속에 투영해 시간과 우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김아영 작가



제1회 ACC 미래상 수상작가인 김아영의 '딜리버리 댄서의 선'이 내년 2월 16일까지 펼쳐진다.

서 아시아 미래주의에도 관심이 많아요. 이번 기회에 저의 관심 분야를 더 넓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감사할 따름이죠."

인간의 상상력이 인공지능과 정교하게 맞물려 구현되는 양상은 가상이 아닌 실제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다.

김 작가는 "AI는 인간의 연산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수한 결과물들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것을 확인하고 선택하고 다음 방향을 제시하는 인

터넷 과정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강현 전당장은 "김 작가의 작품은 폭넓은 리서치를 토대로 아시아적 가치를 세련되면서도 속도감있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며 "ACC 미래상의 수상 취지를 잘 살린 이번 작품이 많은 관객들에게 공유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시 자세한 내용은 ACC누리집서 확인 가능하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주연극협회 청소년아카데미의 이전 공연 장면. (나주연극협회 제공)

청소년 연극 '로그인', 디지털 범죄 '로그아웃'

나주연극협회 청소년아카데미

오늘 정기공연 'THE 로그인'

주인공 김여준(진일영 분)은 동아리 MT에서 여자인 한태희가 술에 취해 실수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다. 여준은 큰 죄의식 없이 이를 촬영해 SNS에 업로드하지만, 이로 인해 태희는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린다.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향하고 공방전이 펼쳐진다. 다양한 증언들과 다름 끝에 여준은 관계의 중요성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깨닫는다.

(사)나주연극협회(회장 임은희) 청소년아카데미가 정기공연 'THE 로그인'을 30일 오후 2시 나주공고 대강당 특별공연장에서 펼친다.

청소년들에게 예술을 통해 윤리적 가치를 교육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극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책임 의식과 타인에 대한 사생활 존중을 전한다. 청소년 관객들이 '배심원' 역할을 맡아 주인공을 심판하는 법정 드라마-참여극 형식을 차용했다.

내레이션을 임은희 회장이, 연출은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 상임연출인 송수연이 맡는다. 주요 출연진으로 이민욱(재판장), 호랑이(안중근), 김나현(차수원), 연다연(김수현), 김단(검사), 이태훈(변호사) 배우 등이 출연한다.

이번 공연의 원작 희곡을 집필한 딸린트 겸 연극 배우 김진호(예인방 이사장)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각도로 접근하는 공연"이라며 "SNS 사용에 뒤따르는 책임감, 사생활 존중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임방울국악상 본상' 염경애 명창 수상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금·상패 수여...특별상 수상자 노혜현

광주시가 '임방울국악상 본상' 수상자로 염경애 명창(51·사진)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국악분야에서 전도유망한 45세 이하 국악인에 수여하는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노혜현(42) 씨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게는 광주시장 명의의 상패가 수여되며 내년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금'으로 본상 1000만 원, 특별상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9월 6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

리는 '제32회 임방울국악제 전야제'에서 진행.

전남대 국악과를 나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부수석으로 활동 중인 염 명창은 200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를 이수했다. '수궁가' 완장을 비롯해 올해 '춘향가' 등 총 12회 완장 경력이 있고, 2002년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2010년 KBS국악대상 판소리 부문에서 대상 등을 수상했다.

특별상 수상자인 노 씨는 광주에서 초·중학교



를 나와 국립국악고, 이화여대 한국음악과를 졸업했다. 현재 '노혜현 그리고판소리' 대표로 활동 중이며 2012년 임방울국악제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삼배 문화체육실장은 "9월 6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임방울국악제 전야제와 본상 경연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한다"며 "대상 수상자는 심청가 완장 공연실황 음반을 발매하는 등, 국악 저변을 확대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했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청춘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30년 이야기'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장 펴내... 오늘 출판기념회

올해는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이 되는 해다. 오는 9월 7일 개막해 12월 1일까지 펼쳐지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30년, 다가올 30년을 가늠할 수 있는 행사다.

행사 개막을 앞두고 그동안의 비엔날레 역사와 인물, 관련 사업들을 엮은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팀장·전시부장과 정책기획실장 등을 역임한 조인호(사진) 광주미술문화연구소장이 펴낸 '청춘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30년 이야기' (심미안)가 그것. 책은 저자가 재단에서 근무하는 동안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내용을 담은 일종의 백서다.

책은 모두 2부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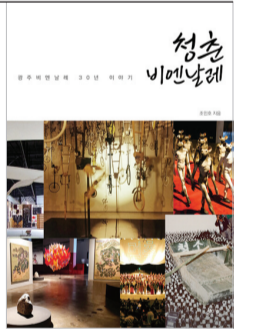
제1부 '비엔날레 30년, 그 서사와 사람들'에서는 비엔날레 창설과정에 얽힌 비화들을 비롯해 신정

아 사태, 세월호월 파문, 비엔날레 창설 주역들을 다뤘다. 역대 민간 전문인사 이사장과 대표이사들에 관한 얘기들도 있다.

제2부 '비엔날레로 세상을 밝히다'에서는 1995년 첫 행사부터 올해까지 역대 광주비엔날레 주제와 주요 작품들을 소개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가꾸기,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폴리와 함께 재단이 주관했던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아트광주 등 도시 변화에 미친 영향 관계도 다뤘다.

이밖에 광주비엔날레 파블리온 조성, 역대 참여 지역 작가들, 도슨트 제도, 청년작가 포트폴리오 공모, 작가스튜디오 탐방, 5·18민주화운동 특별행사들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한국 비엔날레 역사와 향후 방향, 광주



비엔날레가 지향해야 할 과제도 다뤘다.

저자는 "광주비엔날레에 관한 학술적 사료가 아닌 현장의 기억과 자료들을 잘 전해 보자는 생각으로 썼다"며 "이번 책이 광주비엔날레 역사에서 한 시절을 되짚어주는 기록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자는 현재 미술사가이자 미술문화 매개자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남도미술의 숨결', '광주 현대미술의 현장' 등이 있다.

한편 출판기념회가 30일 오후 2시 비엔날레전시관 1층 거시기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